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낸 '카카오게임즈'... 올해 신작 러시

작년 매출 4955억, 영업익 666억
'가디언 테일즈' 흥행... 성장 견인
첨단 기술 접목... 신규 사업 속도

카카오게임즈가 신작 흥행에 힘입어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카카오게임즈는 8일 지난해 매출 4955억원, 영업이익 66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27%,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90% 늘었다.

지난해 4·4분기 매출은 1420억원, 영업이익은 16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 69% 증가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실적은 기존 라이브 게임의 안정적인 실적에 신작 성과가 더해져 PC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모두 고르게 성장하며, 창사 이래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PC온라인 게임 부문은 지난해 12월 출시한 '엘리온'이 1개월 판매 성과



김기홍 CFO(왼쪽)와 남궁훈 CEO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100억원을 달성하며 매출 성장을 견인, 183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모바일 게임 부문은 지난해 7월 국내 및 글로벌 시장으로 출시한 '가디언 테일즈'의 흥행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37% 성장한 2490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자회사 카카오 VX와 신사업 매출로 구성된 기타 매출 역시 골프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33% 증가

한 628억원을 달성,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엘리온', '달빛조각사' 등 기존 타이틀들의 일본,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확장 및 모바일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ORPG) '오딘'을 비롯해 '가디언 오더', '월드플레이어', '소울 아티팩트(가칭)', '테라피어(가칭)' 등 PC온라인



'오딘 발할라 라이징' 신규 북유럽 여행기 영상 화면

과 모바일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신작들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회사들을 통해 첨단 기술인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위치기반(LBS) 기술을 주요 사업에 접목해 '스크린골프', '스마트홈트' 등 게이미피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신규 사업 부문의 속도를 더하고, 유망 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가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PC온라인과 모바일에 걸친 막강한 플랫폼과 탄탄한 퍼블리싱 역량을 비롯해 자체 개발력까지 갖추며, 게임 사업의 밸류체인을 구축, 각각의 영역들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이통3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협력사와 상생'

중소협력업체에 총 780억 조기 지급
SKT 조기지급 계획 포함 상생 방안
KT '설 명절 클린 KT 캠페인' 진행
LGU+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이동통신 3사가 설 연휴를 맞아 총 780억원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상생 협력에 나섰다.

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에 조기 지급하는 자금은 총 780억원에 달한다.

조기 집행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등의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된다. 대금을 조기 확보한 협력사는 신제품 생산 및 설비 투자, 연구개발 비용 등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에 350억원 규모의 대금 조기 지급 계획을 포함한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또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52개사에 지급 예정인 용역 대금 약 100억원도 내주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SKT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유통망·네트워크 협력사 등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해 총 1130억원 규모의 종합 상생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상생 행보를 지속 이어갈 계획이다.

KT는 270억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 대금을 9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KT는 지난해에도 설 연휴에 약 170억원, 추석 연휴에 약 423억원의 협력사 납품 대금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KT는 윤리경영 실천 강화를 위해 '설 명절 클린 KT 캠페인'을 시

행한다.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는 이 캠페인은 2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LG유플러스 또한 2000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160억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14년부터 추석·설 명절 전 납품대금을 조기에 집행하며 협력사와 상생을 도모해왔다. 지난해 조기 집행된 납품대금 누적 액수는 1310억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는 중소기업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저리 자금을 대여해주는 75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와 300억원의 직접 자금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KT, 웅진씽크빅과 구독형 교육상품 선택

통신비 할인 등 프로모션

AI 기반 구독 마케팅 컴퍼니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웅진씽크빅과 손잡고 구독형 교육상품 사업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웅진씽크빅과 8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SKT 본사에서 구독형 교육상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오는 15일에 출시되는 '웅진스마트울' 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통신비 할인 및 무료 데이터를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열 예정이다.

초등 전과목 학습을 할 수 있는 '웅진스마트울' 상품은 콘텐츠와 교육용 상품을 월정액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월 10만9000원을 26개월 동안 납부하는 상품과 월 9만9000원을 28

개월 동안 납부하는 2가지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SKT 공식인증대리점에서 이 상품을 구독하는 고객에게는 만 12세 미만인 가입 자녀의 휴대폰 요금을 가입 익월부터 12개월 동안 1만9800원씩 지원한다. SKT 매장이거나 온라인 T월드를 통해 체험 신청을 한 자녀 고객에게는 3개월간 매일 데이터 500메가바이트(MB)를 추가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양사는 12세 이하 타깃 브랜드 잼(ZEM)과 연계한 초등 전과목 스마트 교육 사업 뿐 아니라 과목 특화형 상품, 중·고등 다양한 상품의 유통 확대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며, AI, 커머스, 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사의 기술과 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K종합화학-로지스올, 물류 폐기물 선순환체계 구축 '맞손'

각사 보유 친환경 소재 기술력 등 제공

SK종합화학이 로지스올이 물류 포장 및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잡는다.

SK종합화학은 8일 로지스올과 함께 서울 종로구 소재 SK서린빌딩에서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 로지스올 서병륜 회장 등 양사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용 폐패렛 재활용 사업 등 물류 폐기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SK종합화학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 배경이 로지스올과의 협업을 통해 물류 포장·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근본

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에 있다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19로 택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스티로폼 포장재, 종이 박스 등 일회용 포장 폐기물이 크게 늘어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폐기물들은 대부분 한 번 사용하고 난 뒤 버려지거나 오래 사용해 파손이 심한 경우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 매립해왔다.

SK종합화학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각사 보유한 친환경 소재 기술력, 산업용 및 생활용 물류 운영 노하우 등을 제공한다.

특히 양사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개발 ▲플라스틱 재질 물류용 폐기물의 리사이클링을 통한 재사용 ▲한 번 쓰고 버리는 스티로폼, 종이 재질의 폐기물

을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대체 ▲친환경 택배 용기 개발,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시범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SK종합화학은 "양사 간 협력이 진척될 경우 파손된 파렛트를 업사이클링해 친환경 포장 용기 등 새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파렛트는 반복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회용 파렛트를 사용할 때보다 연간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약 73%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로지스올이 2025년까지 국내 전체 택배 유통량 중 10% 이상을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로 대체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양사 간 더 큰 시너지 창출이 전망된다. /김수지 기자 skim2935@

빈센, 해수부 선정 '예비 오션스타 기업'

창업·투자 프로그램 집중 지원

친환경 전기·수소 소형선박 제작 전문체인 빈센이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예비 오션스타 기업'에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예비 오션스타 기업'으로 선정, 해양수산 분야를 선도하는 '오션스타 기업(해양수산 분야 매출액 1000억원 달성 벤처·창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예비 오션스타 기업' 선정은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지난 1월 공모를 진행해 창업·투자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역량과 기술의 혁신성, 성장 잠재력 등을 중점적으로



(주)빈센이 개발 중인 수소연료전지선박

평가하여 선정했다. (주)빈센은 우수한 기술 보유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이번 유망기업에 선정됐다.

빈센은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소형 선박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개발 및 관심이 가속화되면서, 특허와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